



2024년 110조 원 민간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 마련

- 올해 10대 제조업의 국내 투자 계획 110조 원, 작년보다 10% 증가
- 장관이 직접 ‘팔 걷어 붙이고’ 투자와 수출을 챙기는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을 실현하는 「신(新)산업정책2.0」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수)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하였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①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既)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②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③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④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하였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 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요

【별첨】 「新산업정책2.0」 전략 요약본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3-4214)



1. 추진 배경

- 투자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해소 ⇒ ‘현장중심+문제해결’ 정책 추진

2. 회의 개요

- 일 시: '24. 2. 7일(수) 15:30~17:00 (90분)
- 장 소: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석자
 - ▲ 정부: 산업부장관, ▲ 기업: 제조업 10대 대표기업 CEO
 - ▲ 경제단체: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 ▲ 간사기관: 산업연구원, ▲ 발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논의내용
 - ① '24년 산업정책방향 (산업부, 8분)
 - ② 글로벌 지역별 이슈 및 우리경제 영향 (KIEP, 8분)
 - ③ 10대 업종별 국내투자 현장애로 건의 (참석기업, 각 3분)

3. 세부 일정

시간		진행내용	비고
15:30 ~ 15:31	(1')	사진 촬영	
15:31 ~ 15:33	(4')	인사말	산업부장관
15:33 ~ 15:41	(7')	'24년 산업정책방향 및 투자애로 지원	산업정책실장
15:41 ~ 15:49	(7')	글로벌 지역별 이슈 및 우리경제 영향	KIEP원장
15:49 ~ 16:59	(70')	자유토론	
16:59 ~ 17:00	(1')	마무리 발언	산업부장관

※ 인사말까지 공개

4. 참석자

① 기업

업종	기업명	참석자
반도체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자동차	현대차	장재훈 사장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사장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박진원 부사장
조선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부사장
바이오	셀트리온	윤정원 사장
기계·로봇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
철강	포스코	이시우 사장
석유화학	S-oil	류 열 사장
섬유	효성첨단소재	안홍상 부사장

② 경제단체

단체명	참석자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③ 경제연구기관

단체명	참석자
산업연구원	주 현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